

나주시, 청소년 성장·도전 응원 ‘화합의 장’

20일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재능·열정 무대 준비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공간도 마련

나주시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성장과 도전을 응원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전 10시 나주시청소년수련관 일원에서 제2회 나주시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는 청소년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시가 주최하고 나주시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의 주제로 참여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빛누리 초등학교 바이올린 앙상블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되며, 1부 기념식에서는 모범 청소년 표창과 법인 장학금 수여식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소년들을 격려하

고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는다.

2부 행사에서는 청소년 풋살대회 ‘몽쳐야 찬다’와 어린이 세발자전거 레이싱 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협동심과 도전 정신을 키우며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또 청소년 공연과 장기자랑 프로그램인 ‘드림 스테이지’에서는 지역 청소년들이 댄스와 밴드, 노래, 악기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준비한 공연을 선보이며 축제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만들기 체험과 놀이 체험, 먹거리 부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공간도 운영해 청소년은 물론 가족과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풍성한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지난해 열린 '제1회 청소년의 날 기념 씩씩나주 청소년 문화축제' 단체 기념 퍼포먼스.

사진제공=나주시청

김호림 나주시청소년수련관장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청소년과 가족,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즐기는 뜻깊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맞

아 열리는 이번 문화축제가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성장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재개관한 나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에 나가기 바란다”고 약속했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순천 매력 담은 ‘문화의 거리’ 문화예술행사로 ‘시동’

예술특화 거점 육성...37개 단체 오감만족 프로그램 풍성

순천시의 대표적 문화공간인 ‘문화의 거리’가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시민들과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시는 올해 ‘문화의 거리 창작활동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37개 단체·사업자가 6월부터 공연, 전시, 체험 등 풍성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문화의 거리를 예술특화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거리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골목 곳곳에 자리한 지역 미술 갤러리와 아티스트의 공방, 그리고 이와 어울리는 야외무대 등 문화의 거리만이 가진 독특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것이 특징으로, 문화의 거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붕없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그 진가를 아낌없이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각 행사는 오는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모든 행사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다. 행사별 상세 일정과 장소는 순천시청 홈페이지 및 공식 SNS 채널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문화의 거리는 누구나 예술을 즐기는 열린 공간이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거리의 고유한 매력을 알리고, 지역 예술인들과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생동감 넘치는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문화의 거리’는 도심의 심장부에 자리 잡고 있고 골목을 따라 갤러리와 공방들이 준비해 순천의 인사들으로 통한다. 사진제공=순천시청

임신부 가족, 땅끝 해남서 쉽과 추억 나눴다

‘태교여행 일번지, 해남’ 만족도 99% 호응 높아

임신부와 가족들이 땅끝 해남에서 몸과 마음을 쉬어가며 출산과 양육을 준비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해남군은 최근 문내면 우수영 관광지 일원에서 전국 임신부 가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태교여행 일번지, 땅끝해남’ 행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태교 여행은 임신부와 가족들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해남에서 정서적 안정과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에서는 임신부의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맘 힐링 스트레칭’을 비롯해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서로 대화를 나

누고 호흡을 맞추며 임신과 출산을 앞둔 가족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 김병래 셰프와 함께하는 가족 쿠킹 클래스도 마련됐다. 가족들은 직접 음식을 만들어 출산 이후 양육 과정에서 함께 할 시간을 떠올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참가자들은 우수영 관광지를 자유롭게 둘러보며 해남의 역사와 관광자원을 체험했다. 단순한 여행을 넘어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일정으로 꾸러졌다. 행사 이후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는 참가자의 99%가 만족한다고 답해 높은 호응을 보였다.

박기성 기자 city@gjdream.com

화순,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 경찰·교통안전공단 등 참여

화순군은 과도한 차량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화순읍 삼천리 공동주택 인근 도로에서 이뤄진 이번 점검은 최근 이륜자동차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음 민원에 대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 규정에 따라 화순군 환경과와 화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등이 함께 실시했다.

합동점검반은 이륜자동차 10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배기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임의 제거 및 불법 개조 변경 여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운행차 소음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음 유발 차량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민원에 환경과장은 “운행차 소음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 문제”라면서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기 임의 개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광양농산물가공센터, 제품 생산 다양화 기반 확대

HACCP 변경심사 통과...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기대

광양 농산물가공센터가 최근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변경심사를 통과해 기존 현미 파이프 과자류에 이어 소스코팅 과자류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변경심사는 소스코팅 과자류 생산 공정을 추가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관련 시설과 공정의 적합성을 평가했다. 심사 결과 관련 기준을 충족해 HACCP 인증 범위가 확대됐다.

그동안 농산물가공센터는 현미를 퍼핑한 스틱형 과자류를 생산해 왔다.

이번 변경심사를 통해 건조 공정을 중요관리점(CCP)으로 추가하고 식품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다양한 소스를 입힌 과자류 생산도 가능해졌다.

센터는 앞서 지난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와사비맛 과자 ‘사비사비’와 아재맛 과자 ‘논픽’을 개발했으며, 올해는 가공센

터 운영법인인 광양농부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교육을 추진하는 등 제품 상용화를 준비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HACCP 변경심사 통과에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소스코팅 과자류 생산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와 위생관리를 바탕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생산을 확대하고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in@gwangnam.co.kr

영암군, ‘영암성대첩 천인그림전’ 개최

19~20일 달맞이공원서

지역민의 손끝에서 탄생한 영암의 역사와 문화가 한여름 밤의 야외 전시장으로 거듭난다.

영암군은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2026 영암국가유신야행’의 핵심 행사로, 지역 사회가 함께 완성하는 ‘영암성대첩 천인그림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영암읍 달맞이공원 보도교를 따라 조성된다. 초·중·고교생과 주민들이 영암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저마다의

시선으로 그려낸 그림엽서들이 교량 전체를 가득 채우며 밤하늘 아래 독특한 갤러리를 연출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관람에 그치지 않고 현장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이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현장에서 제공되는 엽서에 자신만의 그림이나 소망을 적어 전시에 보낼 수 있어, 주민들이 다져놓은 토대 위에 외지인의 이야기가 더해지는 쌍방향 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영암군 측은 이번 행사가 지역의 미래

세대부터 외지 관광객까지 한데 어우러지는 소통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낯선 엽서들이 모여 영암의 숨은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영암국가유신야행은 ‘영암성대첩’의 항쟁 역사를 주제로 영암읍 일대에서 펼쳐진다.

축제 기간에는 천인그림전 외에도 이동형 스토리극인 ‘창우대’를 비롯해 달빛차회, 외국인 미션투어, 영암기후미식회 등 다채로운 야간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들이 관광객을 맞는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암문화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영암=서승용 기자 biz@gjdream.com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청자공모전 개최

내달 6~10일 접수...전통·현대 잇는 창의적 작품 공모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은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계승발전시키고 현대 도예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제26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청자공모전은 국내 청자 분야 최고 권위의 공모전으로, 청자의 전통적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각을 조화롭게 담아낸 우수 작품을 발굴하고 도예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전국의 도예 작가와 관련 분야 전공 학생 등 청자 예술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청자 태도와 유약을 활용한 창작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출품작은 작품성, 창의성, 기술성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상과 함께 상금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우수상 등 다양한 시상상을 통해 우수작가를 발굴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공개돼 청자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릴 예정이다.

1차 서류 접수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접수는 고려청자박물관 방문과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가능하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작품 심사를 거치고, 최종 심사 결과는 8월 7일 발표할 예정이다.

강진원 군수는 “천년의 역사를 지닌 고려청자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감각과 창의성을 담은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2252@gwangnam.co.kr

함평, 대추 재배농가 현장 기술 지원

생육 관리·병해충 방제법 지도

함평군이 폭염·장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대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 지원에 나섰다.

16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 현장 기술 지원은 고온다습한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병해충을 사전 예방하고, 안정적인 생육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을 방문한 함

평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생육 단계별 관리 요령과 병해충 방제법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고온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관수시설 점검법과 양분이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적과 작업법도 함께 지도했다.

이와 함께 타저병, 빗자루병 등 병해 발생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함평=최일규 기자 6263739@gwangnam.co.kr